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8

해와 달 같은 가르침을 들어라

[원문] 佛身普放大光明(불신보방대광명) 色相無邊極清淨(색상무변극청정) 如雲充滿一切土(여운충만일체토) 處處稱揚佛功德(처처칭양불공덕) 光相所照咸歡喜(광상소조함환희) 衆生有苦悉除滅(중생유고실제멸) -해인사 대적광전

[번역] 부처님이 널리 퍼 놓으신 대광명은 형색과 모양조차 없어 지극히 청정하시네. 구름이 모든 국토에 충만하게 흐르듯이 곳곳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있네. 광명이 비치는 곳마다 넘치는 환희여! 중생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고 있네.

[선해(禪解)] 천 개의 눈을 가진 관음보살로도 능히 보아 투철하게 알지 못하는 것. 이는 바람을 따라 비로 변하여 앞산으로 지나가는 것과 같다. 법문을 들을 때에 졸지 말라. 그러나 잠자는 것이 곧 법문이다. 그러나 이는 재상의 딸이 백정의 집으로 시집가는 격이 될 지도 모른다.

이 법문은 보월 선사의 법사(法師)이었던 만공 월면(滿空 月面:1871~1946) 스님께서 하신 법문이다. 스님은 근대 한국 선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의 법제자로 스승의 선지를 충실히 계승해 선종(禪風)을 일으킨 위대한 선지식이다. 법호는 만공, 법명은 월면이다. 스님은 일제강점기 선학원의 설립과 선승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선우공제회운동에 지도자로 참여했으며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31본사 주지회의에 참석해 조선총독 미나미에게 직접 일본의 한국불교정책을 힐책하기도 한 장본인이다. 이는 일제치하의 치욕스러운 불교정책을 쇄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만공 스님의 사상은 생사를 초월한 선사의 기풍이라 할 수 있는데 후에 한국 불교정화운동의 사상적 근간이 되기도 했다. 위의 법문이 중생들에게 던져주는 힘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상(相)이란 모든 물체의 현상을 뜻한다. 하지만 그 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다. 이를 깨닫게 되면 곧 부처인 여래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다. 원래 법문은 불립문자이다. 그래서 그 어떤 해

석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보다 더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불자들은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 꾸벅 꾸벅 조는 것을 많이 본다. 물론, 잠자는 것도 법문이라 할 수 있다. 일찍 아침을 챙겨먹고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온 불자들이 때로는 가상하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법문할 때, 가끔씩 졸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법문 속에는 삶의 이치와 올바른 삶의 교훈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공 스님도 법문을 할 때 조는 것은 '재상의 딸이 백정에게 시집가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우리 속담에 '눈 뜨고도 코 베어 간다'는 말이 있다. 하물며, 스님들이 법문 하는 그 짧은 시간을 잠지 못하고 꾸벅 꾸벅 졸다는 것은 마음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공 스님이 강조 하신 재미있는 법문이 있다.

갑기에 걸린 한 대중이 스님에게 물었다. "해제인데 스님께서 설법을 하시지 않고 있사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뜻한다. 또한 오염됨이 없는 청정무구한 우리의 본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며, 우리의 마음이 명경지수의 경지에 이르러 맑고 투명하여, 서 있는 마음 그대로의 세계이며 그 대로 비치는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모습은 한없이 깊고 넓으며 아무런 결핍 없는 바다에 비유돼 거친 파도와 같은 우리를 마음의 번뇌 망상이 비로소 멈출 때 우주의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속에 비치는 경지가 바로 해인삼매인 것이다. 이러한 여실한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습이며 중생의 참 모습이다. 이것이 곧 해인삼매의 가르침이다. 청정도량 해인사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의 고향이라 할 수 있으며 황량한 대지를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다정한 고향의 손짓으로 부르고 있는 곳이다. 더욱이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 높은 탑, 자연의 그윽함만 있는 게 아니다. 해인삼매의 한 생각, 맑은 마음 그 거룩한 도량이 바로 이곳이다. 그럼, 대적광전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불신보방대광명 색상무변주청정.’ 부처님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연꽃 같은 깊은 가르침을 두루 펴시고 이 땅에 대광명을 퍼 놓으셨다. 부처님의 이러한 은혜는 그 어떤 형상과 모양이 없으며 가없이 청정하다.

‘어운충만일체토 처처칭양불공덕.’ 이러한 부처님의 공덕을 두고 중생은 물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과 산과 나무는 물론 구름조차도 찬양하고 있다. 그 만큼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 펼치신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넓고 크다는 것이다.

‘광상소조함환희 중생유고실제멸.’ 그러므로 부처님의 대광명이 비치는 곳에서는 중생이 가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오직 환희만 남게 된다는 지극한 말씀이 주련 속에 담겨 있다.

이 짧은 경구 속에서는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이 모두 들어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부처님의 대광명을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받고 있다. 즉, 자신이 앉은 그 자리, 그 마음자리에 언제나 부처님의 광명이 해와 달처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늘 해매고 있다. 그러므로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극락 같아야 극락세계에 갈 수 있듯이 항상 우리의 삶을 극락 같은 삶으로 바꿔야만 한다. 스스로 청정해 질 때 그 광명 속에 살게 된다. 또한 부처님 같은 대제비심으로 항상 남을 대하고, 우리 안에 공덕과 허물이 모두 있음을 생각하고 자신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8

모든 움직임이 지혜의 성품

[원문] 若起佛見法見 及佛菩薩等相 而生敬重 自墮衆生位中 若欲眞會 但莫取一切相即得 更無別語 故經云凡所有相 皆是虛妄 都無定實 幻無定相 是無常法 但不取相 合他聖意 故經云離一切相 卽名諸佛 問曰 因何不得禮佛菩薩等 答曰 天魔波旬阿修羅示見神通 皆作得菩薩相貌 種種變化 是外道 總不是佛 佛是自心 莫錯禮拜 佛是西國語 此土云覺性 覺者靈覺 應機接物 揚眉瞬目 運手動足 皆是自己靈覺之性 性卽是心 心卽是佛 佛卽是道 道卽是禪 禪之一字 非凡聖所測.

만약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를 내거나 부처나 보살 등의 모습에 공경하는 생각을 낸다면 스스로 중생의 위치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진실을 알고자 하면 일체의 상(相)을 취하지 말아야 할 수가 있느니라. 그 외에는 따로 할 말이 없으므로 경에서 말씀하시길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한 것이니라. 정해진 사실이 없으며 허깨비와 같은 것이라 일정한 모습이 없으므로 무상한 것이니 상을 취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뜻에 부합하느니라.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길 "온갖 형상을 여의면 곧 부처라 한다" 하신 것이니라.

"어찌해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하니 대답하셨다. "하늘의 마구니인 파승과 아수라들이 신통력으로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외도(外道)이지 절대 부처님이 아니다. 부처는 자기의 마음이니 부처에게 절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부처라는 것은 신령스럽고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지혜다. 사물(중생)을 대함에 있어서 상대에 맞게 올바르게 대응하며,

눈첩을 움직이고 눈을 깜박이는 등 지극히 단순한 움직임과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자기의 신령스런 지혜의 성품이므로 성품이 곧 마음이며 마음이 곧 부처며 부처가 곧 도(道)이며, 도가 곧 부처이니 부처라는 한 글자를 범부로서는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니라" 하셨다.

[해설]

만약에 부처, 법, 보살님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두고 절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중생이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 세계는 형상, 이름을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정진을 해서 업이 끊어지고 맑아졌을 때 하나가 돼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심 분 정진 했으면 정진한 만큼 우주의 근본실상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정진하지 않으면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실

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부처님이요, 보살님이라 하는 것이고, 또한 법이니, 선(禪)이니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니 문자에 속지 마시고 오직 보고 듣고 하는 그 마음자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섬 없는 정진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면 일체의 상(相)을 취하지 말아야 할 수가 있느니라.'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범소유상 개시 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 즉,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뜻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정진해야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상(相)을 취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뜻에 부합하느니라.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길, 온갖 형상을 여의면 곧 부처라 한다 하신 것이니라.'

육인의 경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시간적으로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기에 진실이 아니니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우리 본래 마음자리인 무념(無念)의 경지에 다달아야 하니라 써 쓸 수 있는 부처님 경지입니다.

'부처는 자기의 마음이니 부처에게 절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마음자리에서 보면 그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 실상자리, 그 외의 대상은 사견이니 절대로 끌려가지 말고 마음 안에서 찾아야만 바로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상(相)을 마음에 두고 하지 말라는 것이니, 절을 할 때 본래 나의 참 성품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절을 해야 하며 육신을 나라고 생각했던 상을 버리기 위해 절을 해야 합니다.

'부처라는 것은 신령스럽고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지혜다.' 신령스럽다는 얘기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형상, 모든 이름은 부처자리에서 나타난 현상이니 미묘하다 하며 선과 악, 중생이 부처가 되는 일 또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물(중생)을 대함에 있어서 상대에 맞게 올바르게 대응하며, 눈첩을 움직이고 눈을 깜박이는 등 지극히 단순한 움직임과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자기의 신령스런 지혜의 성품이다.'

심즉시불(心卽是佛)이라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 모든 생각이 마음 작용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자리를 알아차리면 생활 속에 도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맑아지는 것이 전부가 고 생각하며 사는 중생은 도나 진리를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 청주 해은사 주지



무로미짜막부(室町幕府: 1338~1573년) 시대 '소나무 아래 달마'도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 온 몸 감싸는 광명 같이

스스로 탐욕 끊고 청정해지면 그 속에 사는 것

입니다." 만공 스님이 대답했다. "갑기가 낫거든 하겠다." 대중이 다시 법문을 청했다. "나고 죽는 일이 빠르오니 오늘 중으로 꼭 설법 해주소서." 만공 스님이 이르렀다. "귀 먹은 놈에게 어떻게 설법을 할까 보나." 잠으로 가슴을 울리는 법문이다. 그렇다. 우리는 귀먹은 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절을 찾아 부처님을 보기 위해 오거나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할 때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성지인 해인사로 가보자. 법보종찰 해인사는 한국 화엄종의 근본도량이자 우리 민족의 믿음의 총화인 팔만대장경을 모신 사찰이다. 해인사는 신라 의상 대사의 법운인 순응(順應), 이정(利貞) 두 스님이 신라 제40대 애장왕 3년(802) 10월 16일 왕과 왕후의 도움으로 창건됐다. 창건의 잘못은 해인(海印)이라는 낱말에 응집되어 있다. 이것은 <화엄경>의 '해인삼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심법계와 부처님 정각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곧 있는 그대로의 세계, 진실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 객관적인 사상의 세계이며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09. 8. 22(토) 오후 1시부터 ~ 8. 23(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우리 축산물 사랑! 가족요리 경연대회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축산물 사랑, 퓨전요리 대회'를 개최하여 참가 가족들의 다양한 요리 법과 새로운 퓨전 요리를 발굴 소개합니다. 또한 시사회와 전시회 등을 통해 수입산과 비교하여 우리 축산물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구별, 선택방법을 알려 축산농가를 위한 우리 축산물의 자발적 애용과 소비문화를 정착시킵니다.

- 일 시 : 2009. 8. 19(목) 오후 2시 - 오후 5시
- 장 소 : 한정해 요리 전문학원 (02-742-3567)
- 시상내용 : 금상 (1가족), 은상 (2가족), 동상 (3가족)
- 참가자격 : 가족단위 (1가족 2인 기준) ■ 선발기준 : 12가족 선별
- 신청방법 : 우편, 온라인 접수 (팩스 접수가능)
- 접수문의처 : www.kwba.or.kr / 전화 02-738-5386, 735-0406 / 팩스 02-738-7576 온라인 kwba0518@daum.net

● 주관 :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주최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 후원 : 농림부

제3회 '한국여성불자상' 후보추천 공고

한국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하여 포교와 불교발전에 기여한 여성불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3회 '한국여성불자상' 후보추천을 의뢰합니다.

1. 시 상 부 분 : 상패 및 메달 (연꽃에 피는 여성의 메달 및 상패)
2. 수상자 선정 기준 : 불교 포교활동 20년 이상인 여성불자이어야 한다.
3. 후보자 추천인 : 수행단체장 / 사찰 주지스님(20년 이상 청의적 포교방법을 실천하신 분)
4. 제 출 서 류 : 불교관련단체, 기관 대표의 추천서 1통(양식) / 해당부부 활동 공적서 1통(양식) / 관련 부부 실적 자료 첨부
5. 서류 접수 및 토론회 - 접수기간 : 2009년 7월 30일 ~ 9월 20일까지 - 접수 및 문의처 : 본회사무실 TEL.02)738-5586, 02)735-0406 / FAX 02)738-7576 - 주소 : 110-300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206호 이메일 주소 : kwba0518@hanmail.net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9월 20일 오후 4시까지)

게시물에 포함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여 타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